

월요광장

노사학의 최고 계승자 정의림(鄭義林)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물론 부르지 않더라도 늘 노사의 곁에 있던 친손자 송사 기우만(奇宇萬)은 세 학자들에게 내리지 않는 노사 학문의 후계자였으나 손자이기 때문에 3인 속에는 끼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사까지 합해서 '노문사자'(盧門四子)라고 불리야 정당함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았다. 다만 정재규의 여러 글에서 노사 문하에서 공부하며 얻은 친구가 셋이 있었다면서 김석규·정의림·기우만을 거명하였으니 네 사람을 노사 학문을 이은 제자로 규정했다고 여길 수 있다.

고종 16년 1879년 정월(음력), 조선의 마지막 최고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1798~1879)은 노환으로 몇 달 동안 병석에 있었다. 어느 날 조금 기력이 회복되자 노사는 자신이 이룩한 최고의 학문적 업적인 두 개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납양사의'(納陽私議)이고 다른 하나는 '외필'(猗筆)이라는 장문의 논문이었다. 크게 잘못된 지점이 없으나 확실한 얻고 마침 곁에 있던 세 분 제자에게 보여 주면서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대규 김석규(金錫龜), 노백헌 정재규(鄭載圭), 일신재(日新齋) 정의림(鄭義林 1845~1910)이 바로 그 분들이었으니 이른바 '노문삼자'(盧門三子)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 조선의 대유(大儒)로 독특한 유리론(唯理論)을 제창한 기정진의 학문을 이어 준 3대 학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 아니라고 강력히 대응하였다. 정의림은 '변전우소서 노사선생 납양사의 기'(辨田題所著蔞沙先生納涼私議稿議)라는 장문의 글과 '변전우소서 노사선생 외필번'(辨田題所著蔞沙先生猗筆辨)이라는 높은 성리철학으로 노사의 학문이 율곡의 학문을 보완했을 뿐,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극구 변론하여 비방자들의 입을 막게 했던 큰 공로를 세운 학자였다.

오늘의 우리로서야 성리론(性理論)이나 이기설(理氣說)에 대하여 논란할 실력이 없다. 고도의 철학인 노사의 '납양사의'나 '외필'의 옳고 그름을 감히 누가 거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당시나 지금에 이르도록 그런 학술은 바로 조선 성리학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설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정재규와 정의림의 학문적 업적이 매우 찬란하다고 여기게 된다. 정의림은 의병장 면암 최익현이나 의병장 송사 기우만의 의병 활동에도 가담하였고, 깊고 넓은 학문 때문에 고향인 화순과 능주 일대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제자의 제자들까지 879명에 이르는 거대한 학단을 형성해 대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성리학자로서의 정의림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사의 척사위정 정신을 이어 받아 외세를 몰리치고 정통의 유학 사상을 지키며,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단발령이나 변복의 잘못된 조치에 반발하여 조선의 선비로서의 품위를 하나인들 잃지 않고 옳스럽게 조선 혼을 지켰던 학자였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독 학문이 높았던 여섯 명의 제자와 함께 칠송사(七松祠)라는 사당에 모셔졌다. 지금은 많은 유림들이 제학을 울리려 고산사원에 도배향되어 추앙을 받고 있다.

꿈꾸는 2040

문재인의 길, 황교안의 길



김대현
위면연구원장·시사평론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여당과 진보세력 내에서 공격을 받았다. 억울했을 것이다. 당시 4대 개혁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노무현이었지만 '좌측 갑백이들'을 켜고 우회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교 집단까지 합세해 일사분란하게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였고 성공했다.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내부는 무기력했고 분열되어 있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을 했고 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다. 14년 전 참여정부 시절 상황도 마찬가지다. 4대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사립 학교법이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날치기를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 거리 투쟁 53일을 포함한 장장 100일 동안 국회는 대치 국면이었고 결국 한나라당의 승리로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되었다. 이후 이어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압승을 거뒀고 재·보궐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면 모두 이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부터

불러오는데 성공했지만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박근혜의 편도, 그렇다고 야당의 편도 아니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정치는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로 등극하는 천운을 얻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자신이 공안검사 출신임에도 '좌파 독재'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촛극은 아무리 정치가 소리지만 목불인견(目不忍見)이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비서실장 출신이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 10년에 그는 노무현의 친구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년 정권을 내주었다는 비난의 대상자에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복기해 본 정치적 상황은 명확하다. 이대로 내년 총선을 맞을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뒤늦은 개혁 과제지만 이 또한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이후 정국 상황이

나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는 것쯤은 학습 효과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길은 황교안의 길과 같은지라도 다른 극과 극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개혁은 가감 함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필자는 정권 초기부터 해왔다. 대통령 지지율 80%일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이 50%일 때 개혁 과제를 남북 문제와 함께 병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 이상의 개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모든 개혁 입법들을 그때 처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국민의당 모두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있었고 국민의당은 분열되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왜소해졌다.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힘은 당연히 숨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박근혜의 길을 황교안 대표가 따라가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기고

‘사우론의 눈’ 보성 종합기상관측탑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

이 높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집중 호우 등 위험 기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상 관측 장비는 주로 지상만 관측하므로 위험 기상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종합기상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상부터 최고 300m까지 11개 층에서 1분 간격으로 기상 관측 자료를 생산한다. 이 자료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기상 원인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종합기상탑은 삼각형 구조의 첩탑으로 둘레는 12m이며, 총 중량은 670t으로 세 방향의 지선으로 지지되고 있다. 기어식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규모 7.0의 지진과 72.5%의 풍속에도 견디게 설계되었다. 74개의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바람, 기온, 습도, 오실 가스 농도 등 기상·기후 요소를 관측할 수 있다.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 특성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인데, 특히 해륙풍, 서리, 집중 호우, 안개 등 국지적인 기상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상 예측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기상탑에서 관측된 자료를 활용

하여 보성 지역의 온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최고 온도는 지상 부근에서 나타났고,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게 관측되었다. 그러나 봄과 가을에는 지상이 아닌 중간 고도(약 100m)에서 최고 온도가 나타났다. 풍속도 여름과 가을, 겨울에는 높은 고도에서 강하게 관측되었으나, 특징적으로 봄철에는 60~180m 사이에서 높은 값이 관측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보성 지역의 기상학적 특성은 보성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해륙풍을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보성 표준관측소에서의 지속적인 관측과 연구를 통해 해안 지역의 기상학적 특성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종합기상탑을 보유한 보성은 기상 관측의 정확도 향상과 관측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되었다. 보성 표준기상관측소는 우리나라 관측소 중 규모가 가장 크며(약 15만 4000㎡) 세계기상기구 측기 및 관측법 위원회의 시험 관측소(Testbed)로도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넓은 관측지에 조성된 보성 표준기상

관측소는 드론 관측 실험 수행을 위한 최적지이다. 특히 종합기상탑 관측 자료를 이용하면 기상 관측 드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산악 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상 관측의 시각 지역이 많은 편인데, 보성 표준 관측소에서 검증된 기상 관측 드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관측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보성 표준기상관측소는 최적화된 관측 환경과 기존 관측 장비를 갖추고 국산 기상 장비의 성능 개선과 개발을 위한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감우량 측정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안개를 관측하는 시정계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상 예보는 현재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 기상 상황의 감시와 관측은 매우 중요하다. 보성 표준기상관측소는 종합기상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측 장비의 검증 및 표준 관측 기술 개발, 관측 자료를 이용한 국지 기상 현상의 이해를 통해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社說

저들이 ‘독재자의 후예’ 소리 듣지 않으려면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전날부터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식이 시작되면서 금세 빗물을 대신한 것은 눈물이었다. 특히 39년 전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노모의 사연이 소개되자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도 눈시울을 적시는 시민들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투겠다"고 약속했다.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에 체용(體用)이 있고, 넓고도 잡됨이 없고 번거로우면서도 문란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였다.

과연 누가 독재자의 후예들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하는 자유한국당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의 말이 맞다면 자유한국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한국당은 전두환의 후예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추천 지연, 무자격 위원 추천 등으로 조사 위 출범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 망언자 정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5·18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자 한 소중한 시민운동이다. 법정에서까지 이미 결론이 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조사위 출범 협조 및 망언 의원의 대한 징계 절차 빈 대책이 등 5·18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들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평범한 시민들 ‘오월 정신’ 알리미로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일상 속에 오월 정신을 녹여 내고 실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월의 진실을 알리는 염서를 직접 제작해 다른 지역을 찾아 나눠 주거나 대동(大同) 정신을 담은 주먹밥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세연(26·조선대), 박화경(여·25·조선대), 김윤서(여·24·전남대) 씨 등 지역 대학생 세 명은 그제 부산 해운대구에서 5·18 알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파랑새가 소녀를 안고 있는 그림엽서 등을 직접 만들어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지훈(39) 씨는 지난 16~18일 '착한 밥이 총

칼을 이긴 밥'을 주제로 5·18 주먹밥 이벤트를 진행했다. 1980년에 태어난 황씨는 항쟁 기간 광주 시민의 한 끼 식사였던 주먹밥을 재현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5월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양동(大同) 정신을 담은 주먹밥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5·18 당시 독재와 국가 폭력에 맞서 저항한 사람들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시민들의 이 같은 자발적인 5·18 알리기와 광주 정신 실천은 오월의 진실을 밝히는 밑알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서기 676년 중국 당나라의 사찰 제지사(制止寺)에서 태어난 논쟁이 벌어졌다. 절 마당에서 펼쳐지는 깃발을 두고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시비가 붙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이 나지 않자 사람들은 때마침 이 절에 묵고 있던 선종(禪宗)의 대종사 혜능(慧能) 스님에게 답을 물었다. 곧바로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일갈이 떨어졌다.

이 장면은 그로부터 13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될 만큼 유명한 것으로, 흔히 '바람과 깃발의 문답'으로 불린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일도양단·단도좌익이라는 선(禪)의 경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없을 터다. 하지만 이 문답이 '깃발과 바람과 마음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을 설명한 것이라면, '사물은 오직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타나며,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오늘날 최첨단 양자역학 이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했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 도중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었다. 그러면서 "뒤통이 흔들리느냐. 옷이 흔들린다"며 "흔드는 건 어디냐?"고 되물었다. 문 총장은 "외부에서 검찰의 중립을 흔들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릴 때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시비를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흔들리는 재킷(검찰) 그리고 그 재킷을 흔드는 힘(정치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당사자이자 '검찰과 정치권의 주인'인 국민이다. '모든 것이 연계돼 있다'는 양자역학의 이론에 따르면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이유 없이 문득 생겨나진 않았음이 분명하다. 검찰도 정치권도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총행기 정치부장 redplane@

흔들리는 재킷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燮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동 신형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